



큐열·브루셀라증 예방법



1

분만·유산·사산 가축, 감염된 동물의 혈액·대소변·양수·태반 등을 다루는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장갑, 마스크(N95 또는 방역작업용), 방수용 앞치마, 장화, 고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.

2

우유 및 유제품은 반드시 살균된 제품을 섭취하고, 육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.

3

작업장은 작업 종료 후 청소 및 소독해야 합니다.

4

동물과 관련 작업을 한 이후에는 전파방지를 위해 의복과 신발을 갈아신고 샤워를 합니다.

특히, 임산부, 면역저하자, 심장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 출산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.

개인보호구 착용



의심증상 발생시 대처요령

고위험군* 에서 **큐열 및 브루셀라증 의심증상**이 있는 경우
의료기관 방문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
문의하세요

* 축산업종사자, 수의사, 인공수정사, 도축검사원, 도축장종사자, 동물관련종사자, 식육포장처리업자 등

큐열·브루셀라증 예방수칙 이렇게!



인수공통감염병이란?



정의

- 인수공통감염병(人獸共通感染症)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을 뜻합니다.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현재 고시된 인수공통감염병은 총 10종입니다.



종류

| | |
|-----|---|
| 제1군 |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|
| 제2군 | 일본뇌염 |
| 제3군 | 결핵, 브루셀라증, 탄저, 공수병, 변종 크로이츠펠트-야콥병(vCJD) |
| 제4군 |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,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, 큐열 |

* 인수공통감염병의 결핵은 우결핵에 의한



발생현황

- 큐열은 2014년 이후 보고건수가 증가하여 2018년에는 163건이 보고되었으며, 브루셀라증은 10건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.
- 이 외에 공수병, 탄저, 변종크로이츠펠트-야콥병,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,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은 국내 발생보고가 없습니다.

* 인수공통감염병이 의심되면 즉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1 큐열



감염경로

- 일반적으로 염소, 소, 양 등 감염된 가축에 의해 사람에게 전파됩니다.
- 주로 감염된 가축의 유즙, 대·소변, 출산 배출물(양수 및 태반 등)으로 오염된 먼지 등을 흡입하여 감염 됩니다.
- 드물게 성접촉, 수혈, 골수 이식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있습니다.
- 살균처리 되지 않은 유제품 또는 육류를 섭취하여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진드기를 통한 감염도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.



증상

- 감염자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, 일부에서만 증상을 나타내며, 급성과 만성형의 형태를 보입니다.
- 급성큐열은 고열, 오한, 피로, 근육통, 두통 등이 나타나며, 폐렴, 드물게 중추신경계 증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.
- 만성큐열은 심장, 혈관, 뼈 등을 침범하며 감염성 심내막염이 가장 흔한 임상양상입니다.

2 브루셀라증



감염경로

- 감염된 가축의 분비물, 태반 등에 피부상처나 결막 등이 직접 노출되어 감염됩니다.
- 살균처리 되지 않은 우유 및 유제품, 덜 익힌 육류 섭취로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브루셀라균에 오염된 먼지를 흡입하여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.
- 드물게 성접촉, 조직이식, 수혈 등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있습니다.



증상

- 급성감염은 치료 후 대부분 8주 이내 호전되며 오한, 야간발한, 심각한 두통, 관절통, 요통, 설사 등이 나타납니다.
- 만성감염은 1년 이상 지속되며 식욕부진, 체중감소, 수면곤란, 우울증 등이 나타납니다. 때로는 뇌수막, 척추, 대퇴골, 관절 또는 심장판막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